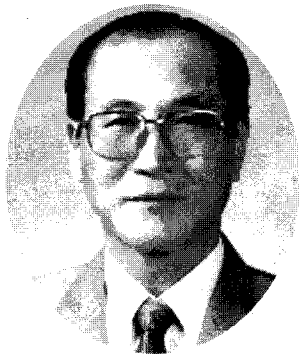


기술제일주의가 업계 일위 비결

94년 80억 설비투자 국제적인 필름전문기업으로 발돋움



▲ 일신화학 창업자인 임오순 회장

업계선두 유지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구미에 맞는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어 나간 것이 업계에서 일신화학공업(주)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듯 합니다”라고 말하는 임동욱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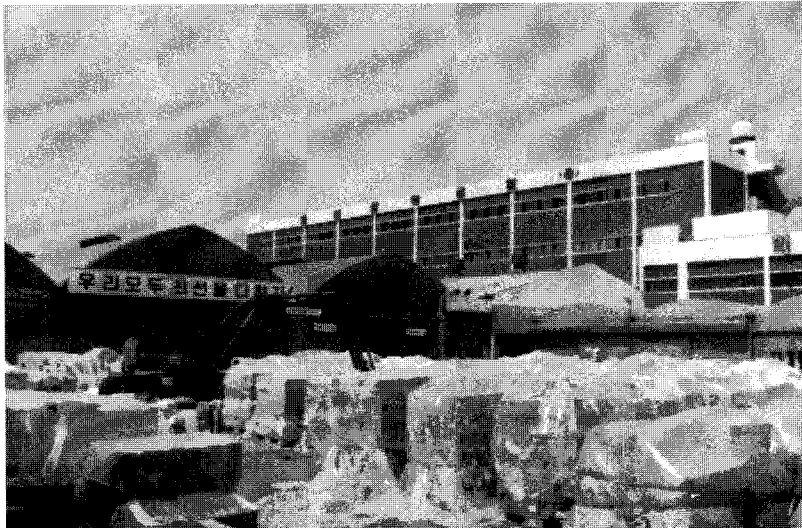
일신화학공업(주)는 1987년 일신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전농동에 서 임오순회장에 의해 창사된 이래 30여년간 시설원예와 산업용필름분야에서 막대한 공헌을 한 기업이다. 특히 일신화학의 상징인 학표는 농민들과 희노애락을 같이해왔을 뿐 아니라 농업용 장수필름과 보온필

름, 삼중필름, 스트레치필름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제품들이 일신화학의 이름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러한 공이 인정되어 1994년 중소기업 우수경영인상(상공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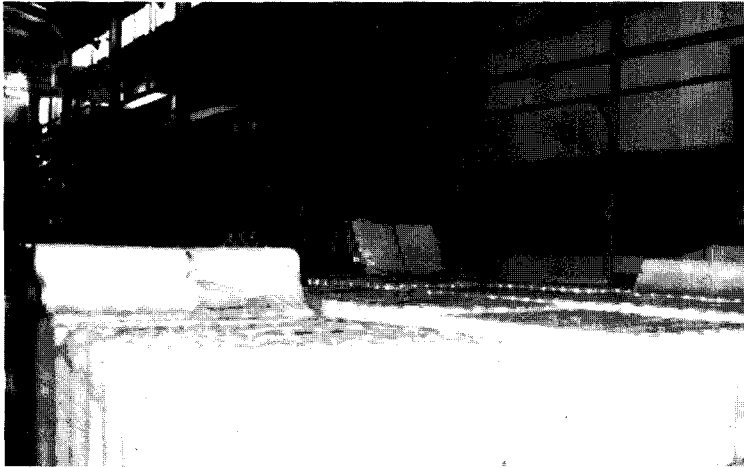
일신의 30년 역사는 한국의 포장사와 유사하다. 즉 1980년대 오일과 동으로 인해 폐사의 위기를 격기도 했지만 회장이하 단결과 원가절감, 그리고 업종전문화 정책을 펼치며 국내 최고의 필름메이커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닦기도 했다고 한다.

특히 업종전문화 시책은 80년대 이전 포장과 필름, 인쇄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던 백화점식 기업에서 농업용 필름과 산업용 필름으로 그 영역을 대폭 축소하고 기술개발과 꾸준한 선진기술 도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하며, 당시 고락을 같이 하던 많은 사원들이 독립하여 협력업체로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일신화학측은 농업용 필름에서 만은 일본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다. 임오순회장은 일본의 필름업체와 기술제휴 및 도입을 통해 늦어야 4달정도 차이를 두고 동일한 제품을 한국상황에 맞게 상품화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일신의 노력은 그동안 일신이 만들어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고 학표 농업용 필름 메이커로 잘 알려진 일신화학공업 전경



▲ 출하를 기다리며 적재되어 있는 일신화학의 필름 제품

낸 뛰어난 농업용 필름에서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농업용 필름은 농한기, 농번기 등 농사의 순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 때에는 같이 농한기를 맞을 정도로 밀접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공장 내부에는 잉여인력이 있을 때도 있고, 요즈음은 기계의 반 이상이 가동 중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수요가 많을 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라고 임동욱 부회장은 설명했다.

94년 안개방지 필름 등 선보여

일신화학은 이러한 농업용 필름의 단점 때문에 베스트레치 필름과 라미네이트 필름 등 산업용 필름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94년 7월 스트레치 제조 2호기를 도입하는 등 한해동안 80여억원의 설비를 신증설하고 업계 일위의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령에 총 사업비 50억원규

모의 필름공장을 건설하고 높이 27m의 압출기를 이탈리아로 부터 도입하여 동양최대규모인 17m짜리 농업용 필름을 본격생산하기 시작했다.

기술개발은 자회사인 미림화학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신화학공업은 소재와 제품가공 분야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분화시키고 있다. 일신화학공업에서는 R&D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만 국내 포장업계의 공통적인 애로점인 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다. 그러나 꾸준한 투자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부서라는 인식하에 기술개발에 난점은 있다 할 지라도 기대를 걸고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94년 한해만 해도 TQC부서와 R&D부서에서 안개방지 필름 등 5개의 신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자회사인 미림화학은 현재 임동욱 부회장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화된 포장업체이며 400억원규모의 회사라고 한다. 생산품목은 콤팩트, 특수첨가제 등을 생산하며 연간 100억원의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화된 생산라인과 무인 기

계 등을 이용하여 인원을 최소화시킨 공장을 시화와 오산 두곳에 두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산업용필름 생산 박차

일신화학이 산업용 필름중 가장 기대하고 있는 스트레치 필름은 베스트레치(Bestretch)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필름전문메이커의 자부심을 가지고 만든다고 한다. 베스트레치필름의 특징은 국내 최다층 필름일 뿐 아니라 연신력이 뛰어나 포장원가가 절감되며 필름의 생명인 균일한 두께로 인장강도가 우수하고 투명성이 뛰어나 피포장물의 보호와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제품이다. 또한 자외선 및 내구성이 강해 내용물의 변색과 변형을 막아주고 다층 팔레트 적재를 통해 장소 등이 절약되는 잇점을 갖고 있다. 현재 베스트레치 필름은 포장물의 장기 보관시 녹방지, 탈색방지 등과 알루미늄 캔, 벽돌 등 운송시 흩어지기 쉬운 포장물, 각종 원료 및 비료 등 포대를 이용하는 포장물에 사용하고 있다.

일신화학은 라미네이트 필름 제조에 30여년의 경력속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첨단기술, 최신설비를 갖추고 업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기술과 설비로 생산되는 SEALANT용 필름으로서 각종 식품용 포장재의 라미네이트용으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일신의 라미네이트필름의 특징은 필름의 두께가 균일하여 라미네이트 작업시 주름이 생기지 않고 필름의 표면에 Gel, Fish-eye, Pinhole 등이 타재

품에 비해 적어 상품성을 높혀준다고 한다. 또한 코로나 방전 표면처리가 우수해 드라이 라미네이션 작업성이 뛰어나며 투명성이 좋아 특히 Heat Sealing이 우수하여 Sealant용 소재로서 최적의 필름이라고 한다.

공압출력방식에 의한 자기점착성 필름은 일신화학이 자랑하는 제품으로 투명성과 박리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점착제 가공이 필요없는 3층형 필름이다. 이 제품은 점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박리후 피착체에 점착제가 남지 않고 투명성이 좋기 때문에 품질검사가 용이하며 점착후에 변형이 적어 박리가 쉽다. 현재 스테인레스판, 알루미늄판, 색도장강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영농한국의 길 열어

일신화학은 국내 제일의 농업용 필름메이커이다. 일신화학은 1981년에는 농업용 장수필름과 보온필름을, 1986년에는 삼중필름과 보호필름(MASKING FILM), 1994년 오래가무적필름, 1995년에는 17미터 초광폭필름인 다더퍼필름과 울타리 필름을 국내최초로 개발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GEC사로부터 첨단보호필름 기계를 도입하는 등 농민들이 농한기를 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영농의 길을 개척했다.

외피용으로 사용되는 학표 오래가 무적필름의 경우 기존의 필름이 해와 습기 등 자연에 노출되어 1년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부식되었지만 이 제품의 개발과 시판으로 농민들이 매년 필름을 갈아 씌우지 않아도 시설원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게



▲ 지난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KOEX에서 열렸던 Seoul Pack에 출품한 일신화학공업

했다. 더욱이 수명성, 투명성, 보온력에서 어느 제품보다 뛰어난 일본의 슈퍼솔라필름 수준의 제품이라고 한다. 오래가무적필름은 1회 무적제 스프레이로 4년 이상의 무적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하우스 내부에 안개 발생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먼지가 잘 타지 않아 오래 설치해도 투명성이 우수하다고 한다.

다더퍼 필름의 경우 대형단동 외피용으로 적합한데 국내에서 가장 폭이 큰 17미터필름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투광성과 내구성이 더욱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초광폭이기 때문에 광폭으로 만들기 위한 다리미로 접착하는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 없어졌다. 다더퍼필름은 접은폭 700~850센티미터까지의 초광폭 필름일 뿐 아니라 삼중복합 필름이기 때문에 내구성, 투광성, 무적성이 뛰어나 대형하우스에 적합하다.

삼중필름은 보온물질을 중간층에 두고 필름 양면에 내구성이 높은 장수막 및 무적층을 형성시킨 3층구조이기 때문에 보온성과 무적성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3중처리하여 보온력이 뛰어나 겨울철 유류비가 절약되며 주·야간 기온차를 조절하여 작물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므로 수확기간과 수확량을 증대시켜 준다.

이외에도 삼중구조의 삼중 이브이 에이필름과 이중장수필름인 슈퍼장수필름, 학표보온필름 등 과학영농에 필요한 다량의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손정수 기자

필름은 환경파괴의 주범이 아니다

농업용 필름 집중 육성할 계획

일신화학공업(주)는 농업용 필름과 산업용 필름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 성장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신화학은 임순오회장께서 1967년 (주)미원퇴사후 방산시장에서 비닐판매로 부터 출발하여 전농동에 소규모 공장을 건립하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다양한 제품, 즉 80년만해도 목동공장에서 테트라팩, 인쇄, 비닐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오일쇼크로 적자상황을 겪기도 하면서 종업원의 정예화를 통해 기술제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종전문화를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일신화학공업(주)의 성장비결은 기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신과 상황에 맞는 기업 경영 양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술제일주의는 일본의 포장과 농업용 비닐업계에 친분이 두터우신 회장님의 지휘하에 선진 기술을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품목과 기계는 통상 3년이상 운전한 전문 기능공만이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능공에 대한 우대와 능력배양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공들에게는 안산시내의 사택과 공장내의 기숙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공장내의 작업이 즐겁도록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예로 업계에서는 특이하게 일일 3교대 작업을 통해 불량을 최대한 줄이고, 종업원들의 여가생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농업용 필름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농업용 필름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신화학은 일본과 기술제휴를 통해 오래가 무적필름, 다터퍼필름등 다양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현재 농업용 필름 규격은 수만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외국 처럼 잘 짜여진 기계화 영농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자신의 논과 밭에 맞는 규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는 수만가지에 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단가가 높고, 정확한 제품을 사용하는 데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민들이 제품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얇은 필름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즉 0.1~0.15mm두께의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은 0.05mm두께의 필름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국내 필름은 쉽게 찢어지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민들이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일신화학공업(주) 임동욱 부회장

현재 농업용 필름과 포장재가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대한 대처방안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필름류에 대한 인식이 환경파괴라는 것으로 결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의 소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농촌의 환경파괴 주범처럼 알려진 농업용 폐비닐의 경우 수거만 제대로 된다면 재생을 하거나 연료로서 충분한 상업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장재와 농업용 필름은 수거만 제대로 된다면 환경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와 농민, 제조회사의 활발한 수거노력하에 환경보호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은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산업용 필름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용 필름은 여러가지 조건으로 인해 산업용필름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집중육성할 계획입니다. 예를들어 베스트레치필름은 업계최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없는 제조기계를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는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화하고 있으며, 마스킹 필름은 국내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넘어 해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도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용 필름은 업체간 과당경쟁이 예상되 경쟁력을 갖추어 성력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생산과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을 최대한 낮추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